투어 번호
LKRZKJQT2M

콜롬보에서 출발하는 사원과 야생지역 투어 (2일)

2일 · 1박 |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

AI 생성 이미지 ·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

이 체험 소개

이 짧은 2일 투어는 남부의 사찰 지역과 스리랑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야생동물 보호구역 중 하나인 야라 국립공원을 연결합니다. 콜롬보에서 출발한 개인 차량이 마타라 근처의 두 개의 독특한 불교 사원을 거쳐 야라 근처에 도착하고, 다음 아침 사파리를 진행한 후 마타라를 경유하여 콜롬보로 돌아갑니다.

첫째 날은 종교 건축과 예술에 할애됩니다: 높이 100피트 이상의 부처상이 있는 두 개의 사원, 칠해진 터널 통로, 벽화, 그리고 조각된 장면들입니다. 둘째 날은 자연과 지역 생활로 전환되며, 표범, 코끼리, 나무늘보곰, 조류를 찾는 야라 사파리, 온천에서의 휴식, 그리고 콜롬보로 돌아가기 전에 마타라 근처의 가족이 운영하는 뱀 농장 방문이 포함됩니다.

여행 전체는 개인 차량과 운전 가이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각 지점에서 유연하게 정차할 수 있습니다. 숙박, 식사, 입장료는 별도로 준비되므로 여행자는 자신의 예산에 맞는 숙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

일별 여행 일정

Day 1 콜롬보 → 얄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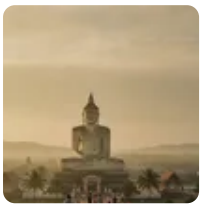
샤퍼 가이드와 함께 콜롬보를 출발하여 얄라로 향하는 이날 여정에서는 남부 지역의 독특한 불교 사원 두 곳에 들르게 됩니다.



웨헤라헤나 포르와라마 라자 마하 위하라야

마타라 시내에서 약 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사원은 세계 최초의 터널 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아누라다푸라 및 폴론나루와 시대의 양식으로 만들어진 130피트 높이의 불상과 불탑, 신성한 보리수, 삼매불상이 있으며, 벽면에는 움막가 자타카와 우만다와의 자타카 이야기를 묘사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.

AI 생성 이미지 ·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



웨우루칸날라 라자 마하 위하라야

딕웰라에서 벨리아타 방향으로 1.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사원은 18세기 후반에 조성된,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160피트 높이의 좌불상으로 유명합니다. 또한 고통받는 악마와 죄인들의 실물 크기 형상이 전시된 '지옥의 터널'이 있으며, 사원 벽면에는 부처님의 생애를 만화 형식으로 묘사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.

AI 생성 이미지 ·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

Day 2 얄라 → 마타라 → 콜롬보

둘째 날은 얄라 국립공원에서의 사파리로 시작하여 콜롬보로 돌아가는 길에 온천과 뱀 농장에 들르게 됩니다.



얄라 국립공원

스리랑카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이 공원은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으로, 표범, 야생 물소, 늘보곰, 대규모 코끼리 무리를 비롯해 다양한 포유류, 조류, 파충류, 양서류, 어류 및 무척추동물로 유명합니다.

Ranmith Welikala · CC BY-SA 4.0

만두나갈라 온천

사파리와 체크아웃을 마친 후, 여정은 만두나갈라로 이어져 온천을 방문합니다.

마타라 뱀 농장

3대에 걸쳐 반다라 가문이 운영해온 이 농장에서는 스리랑카의 뱀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, 원하는 분들은 뱀과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. 이 가문은 아유르베다 뱀 치료법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.

포함 사항

포함

-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, Fuel, Parking & Highway tolls.
- Service of English-Speaking Chauffeur Guide.
-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.

미포함

-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.
-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.
- Expenses of personal nature.
- Visa and Related Expenses.
- Tips & Portages.